

■ 재보선 승패와 지역 정치권·민주당 역학구도

손학규 승리땐 총선 광주·전남 대폭 물갈이

패배면 비주류 도전·지도부 인책론 등 지각변동 예고

4·27 재보선 결과는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흐름을 물론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번 재보선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의 역학구도에 변화가 불가피, 내년 총선 공천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우선 4·27 재보선 승패를 가늠할 기준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출마한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로 꼽히고 있다. 손 대표가 승리를 거둔다면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도는 급격히 손 대표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나라당의 텃밭에서 '선당후사'를 내걸고 출마한 손 대표는 명분과 실리면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면서 민주당은 물론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한 손 대표는 원내대표 경선은 물론 추후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손 대표의 확고한 리더십 구축은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당장,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선호 의원에게는 손 대표의 지원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 등의 행보에도 손 대표의 지원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대권 도전을 앞두고 손 대표는 과감한 민주당의 개혁 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기 총선에서 '공천 혁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이인영 최고위원 등 민주당 내부의 386 그룹이 가세하면서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혁명은 사실상의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손 대표가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민주당의 내부 사정은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손 대표의 리더십이 취약해지는 것은 물론 대선 주자로서의 위치도 흔들리면서 정동영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당내 비주류 주자들의 도전이 직면할 전망이다.

또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및 대권 주자들의 계산과 조율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민주당

은 각종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분당 을과 강원도지사까지 한나라당에 내준다면 지도부 책임론 등이 부상하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처럼 재보선 패배는 민주당의 역학구도를 복잡하게 얽히게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과감한 공천 혁명보다는, 계파간의 나눠먹기 형식으로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 결과는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도는 물론 내년 총선 공천과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역학구도 변화는 내년 총선에서의 광주·전남지역 물갈이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저축銀 '특혜 인출' 야, 진상조사 추진

이대통령 "영업정지 직전 인출 철저조사"

민주당 등 야권은 26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예금 대량인출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업정지 직전 VIP 고객과 일부 간부에 의해 많은 액수가 인출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정무위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사전정보에 의한 인출이 확인된다면 환수 및 정부채권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사법당국은 특혜 인출자들에게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의 전액 환수 등 즉각적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고 책임자들을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

다"면서도 국조 및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회경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무회의 직전 이뤄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이 왜 이렇게 모랄해져드(도적질 해이)가 심해진 상황까지 갔느냐"면서 "감독기관의 직원 문제와 함께 근본 원인을 잘 쫓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의 원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나홀로 유세' 완주

현역의원·보좌진 등 총출동 저인망식 득표전

4·27 분당을 재보선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26일에도 '나홀로 유세'를 이어갔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번 시점에서 혈혈단신으로 승부수를 던진 면모를 고수, 비장함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의도였다.

한나라당의 물량공세에 맞서 인물론을 기조로 선거전을 완주함으로써 차별화를 기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이날 오전 미곡역 사거리에서의 출근인사로 유세를 시작한 손 대표는 한솔마을과 청솔마을 등 아파트 단지를 방문, 유세차량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변화를 원하면 저 손학규를 선택해달라"며 지지와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유세차량을 타고 지역구의 주택가로 깊숙이 들어가 지지를 호소하는 '게릴라 유세'를 계속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서민과 중산층의 고단한 삶,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변화를 만들어주십시오. 투표로 희망을 보여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투표용제고 노력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당 차원의 사활을 건 '그림자 총력전'이 전개됐다.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과 김부겸·이미경·박영선·문화적 의원 등 현역 의원 30여명은 출근인사를 벌인 뒤 저마다 출저자 저인망식 득표전을 벌였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손 대표를 감내중 대통령에 비유하는가 하면 재보선 직후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하는 박근혜 전



분당을 재보선에 나선 한나라당 강재섭(오른쪽) 후보와 손학규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26일 각각 성남시 정자역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특사라는 사탕을 줬다"고 비난하는 등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분당乙 대대적 세몰이

유명 정치인 총동원 마지막 거리 유세

4·27 재보선을 하루 앞둔 26일 한나라당은 성남 분당에 유명 정치인들을 총 출동시켰다. 분당을 만든 내줄 수 없다는 비장감이 감돌 정

도였다. 강재섭 후보는 오전 6시30분부터 여당 의원 10여명과 함께 출근 인파로 넘쳐나는 미곡역에서 거리유세에 열을 올렸다. 대구가 지역구인 유승민·서상기·배영식 의원과 경북 구미갑 출신 김성주 의원을 지하철역 출구에서 분당 주민들에게 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종구·유일호·정진섭·고홍길·이우아·이은재·나성민 등 수도권 및 비례대표 의원들도 출근길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정자역에선 안상수 당 대표와 10여명의 의원들이 출근길 인사를 했다.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경철 의원, 경기도당 위원장인 이사철 의원, 당 대변인인 안형환 의원 등은 안 대표의 옆에서 강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

오전 11시 경기도당 선거사무실에선 출근길 인사에 참여한 의원과 경기지역 원외 당협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회의가 열렸다. 고홍길 분당을 선거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밤늦게까지 분당에 있겠다는 기본으로 임해달라. '내 선거다'라는 심정으로 뛰어달라"고 독려했다.

강 후보는 은종일 유세차량을 이용해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났다. 오후 1시 정자역 유세 때는 홍준표 최고위원과 조운선 의원 등 '스타 정치인'이 동승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감세철회' 논쟁 재연 전망

정두언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서명 착수

한나라당 내 '감세 철회'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소득세 감세 철회 논쟁에 이어 이번엔 법인세 감세 철회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26일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키로 한 정부 방침에 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 서명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고 ▲과표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2%포인트 인하해 20%로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시 새로 신설될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의 0.4%인 1400개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을 2%포인트 인하했을 때와 비교할 때 2조 1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

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정 최고위원 등은 법인세법과 함께 향후 '감세 의원총회'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당내 논쟁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식·임태규·박상은·구상찬·이진복·정태근 의원 등과 만나 법인세 감세 철회와 함께 소득세에 대해서도 "추가 감세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35%)을 2%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다만,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 35% 구간을 비롯해 '1억5천만원 초과 구간' 신설, 현 35%의 최고세율 인상 등의 대안이 제기됐으며, 이를 의원은 내주초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신의 현장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지게차 임대·렌탈

한국보다 굴삭기 광주·전남 대리점

굴삭기·지게차·판매·임대·A/S·중고매매·캐피탈

덕승건설(주)·덕승물류기계

T.959-0100, 374-1686, 010-8108-2500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존재)

문의 02)6908-7021, 7024 (인사불응)

*참조: 공시지가 ₩1,130,000~ ₩1,320,000/㎡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수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라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김정수)

공무원 대출

공무원 대출

대 상: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금 액: 500만원~8,000만원

금 리: 년 5%~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중이신 분 가능

직장인 대출

금 액: 500만원~5,000만원

금 리: 년 9%~

대 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구중개업 등록기간: 대구광역시 대표자: 백영학

계금용권이자율: 최저년 5%~13%(연체금리 18%~22%) 제금용권이자율: 최저년 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 최저년 33%~44%(연체금리 44%)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대출대상: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대출금액: 2백만~4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대출금리: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대출기간: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과다대출: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대상: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금액: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금리: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기간: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AI세 -80%+α (60%)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 -80%

금리: 연 3.93%~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담당 010-7112-3135